『国立国会図書館件名標目表』의 한·중 관련 주제명표목에 대한 비교 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f Subject Headings Related to Korea and China in the NDLSH

문 지 현(Ji-Hyun Moon)*
김 정 현(Jeong-Hyen Kim)**

〈 목 차 〉

Ⅰ. 서 론
1. 연구목적 및 방법
2. 선행연구
Ⅱ. NDLSH의 발전과정 및 특성
1. NDLSH의 발전과정
2. NDLSH의 특성
Ⅲ. NDLSH 한·중 관련 주제명표목의 특성 분석
1. 한국 관련 주제명표목의 특성
2. 중국 관련 주제명표목의 특성
3. 한·중 관련 주제명표목의 비교 분석
Ⅳ. 결 론

초 록

이 연구는 일본의 대표적인 주제명표목표인 NDLSH 2008년판에 수록된 한국과 중국 관련 주제명을 추출하여 표목의 수와 주제별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관련 주제명은 표목과 참조어를 포함하여 총 222개로, 중국 관련 주제명에 비해 33% 수준이며, 주제의 다양성이나 특정성 측면에서도 많은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현존하지 않는 '朝鮮'의 국호를 한국의 국가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이나 '渤海'를 중국의 역사로 배정한 점 등은 조속한 개정이 요구된다. 한편, 중국 관련 주제명에는 다민족국가의 특성을 반영하여 고대민족명, 소수민족의 거주 지역명, 그리고 소수민족의 언어 등 한국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주제명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키워드: 일본국립국회도서관주제명표목표, 주제명표목표

ABSTRACT

This study selected Korea and China-related subject headings among all names contained in Japan 2008 Version of NDLSH, and compared and analyzed the number of headings and the features according to each theme. As the result of analysis, the total number of Korea-related subject headings is 222 including its headings and referent words. At comparing with China-related subject headings, the number of Korea-related subject headings was very small size, and shows many limits in terms of the variety or the specificity of themes. Especially, the facts that 'Joseon', which is not existed any longer, is used as Korea's nation name, or that Balhae's history is assigned into Chinese history are required to be corrected quickly. Meanwhile, in the China-related subject headings field, multi-racial nation's features are reflected, and are contained many theme names like ancient racial names, each minority's residental area name and its native language which are rarely appeared in Korean theme names field.

Keywords: NDLSH, Subject Headings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rlacodnjs@hanmail.net) (제1저자)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hgim@chonnam.ac.kr) (교신저자)
• 접수일: 2011년 2월 25일 • 최초심사일: 2011년 3월 9일 • 최종심사일: 2011년 3월 28일

www.kci.go.kr

Ⅰ. 서 론

1. 연구목적 및 방법

온라인 목록이나 서지데이터베이스에서 주제색인 및 검색도구의 하나로 사용되는 주제명표목표는 표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주제명을 일정한 형식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편찬한 통제어휘표이다. 즉, 주제명표목표는 종합 백과사전과 같이 모든 분야의 주제어들이 체계적으로 수록되어 있어 이를 분석하면 관련 주제영역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미국의회도서관의 LCSH가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基本件名標目表』(Basic Subject Headings: BSH)와『国立国会図書館件名標目表』(National Diet Library Subject Headings: NDLSH)의 2개 주제명표목표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일본도서관협회가 유지관리하는 BSH는 여러 도서관에서 사용되는 주제명표목표로서 TRC MARC과 같은 민간 MARC에 채용되고 있으며 주로 일반적인 용어를 수록하고 있다. 반면 NDLSH는 국립국회도서관에서 사용되는 주제명표목표이지만『日本全國書誌』에 적용되어 JAPAN/MARC에도 이용되고 있으며, 주로 학술적인 용어를 수록하고 있다.[1)]

이 연구는 일본의 대표적인 주제명표목표인 NDLSH 2008년판에 수록된 한국과 중국 관련 주제명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중·일은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역사와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일본이나 중국의 주제명표목표에 수록된 관련 주제명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NDLSH와 관련 문헌을 분석하여 NDLSH의 발전과정과 특성을 분석한다.

둘째, NDLSH의 최신판인 2008년도판에 수록된 한국과 중국 관련 주제명을 추출하여 표목의 분포와 주제별 특성을 분석한다. 한·중 관련 주제명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PDF형식으로 제공되고 있는 NDC(신정9판) 분류기호순 배열표와 50음순 배열표를 전면 검토하여 추출하되, Web-NDLSH 검색시스템에서 Korea, Korean, China, Chinese, 朝鮮, 韓國, 中國 등의 용어들로 검색·보완함으로써 해당 주제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셋째, 이상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한·중 관련 주제명간의 특성을 비교 분석한 후, 이를 통해 NDLSH의 한국 관련 주제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도록 한다.

---

1) 村上幸二, "BSH(基本件名標目表)とNDLSH(国立国会図書館件名標目表)の計量的比較分析," 奈良文化女子短期大學紀要, 第40号(2009), p.135.

www.kci.go.kr

2. 선행연구

주제명표목표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 중 한국 관련 주제명에 대한 연구와 NDLSH에 대한 연구로 대별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 관련 주제명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LCSH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Kim은 LCSH 제12판의 한국 및 동아시아 관련 주제명을 추출하여 알파벳순으로 편집하였다.[2] 김영귀는 주제명표목표로서 LCSH의 특징과 문제점을 고찰한 후, LCSH 제18판을 대상으로 정치와 정부, 언어, 예술, 문학, 그리고 역사 부문의 한국관련 주제명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제시하였다.[3] 윤정옥은 LCSH 제20판을 대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용어들의 선정 형식을 조사하고 한국과 일본 관련 주제명의 개략적인 주제 분포 및 세분의 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4] 남태우 등은 LCSH과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에서의 독도의 명칭 표기 현황을 조사하고 한・미・일 지명위원회 및 KDC, LCC, NDC 등의 표준분류체계내의 독도 기재 현황을 파악하였다.[5] 정연경은 주제접근 도구로서 LCSH의 유용성을 분석하면서 독도의 표기문제를 분석하였다.[6] 김정현은 LCSH 초판부터 최신판인 제31판까지 한・중・일 관련 주제명표목의 변천과정 및 주제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7]

한편, NDLSH에 관한 연구는 주로 NDLSH의 구조와 발전과정 등 일반적인 특성 분석이 대부분이다. 村上은 일본의 대표적인 주제명표목표인 BSH와 NDLSH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8] 嶋田은 NDLSH 개정판(2004년판 이후)의 특성과 미래에 대하여 고찰하였다.[9] 이는 주된 개정 내용을 설명한데 불과하지만, NDLSH의 특성과 이용방법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永森 등은 NDLSH의 텍스트 데이터를 SKOS(Simple Knowledge Organization System) 형식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위한 그래픽 브라우저를 작성하였다.[10]

---

2) Kim, Joy,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 Related to Korea and East Asia in Genera*([Unknown] :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1980).

3) 김영귀, "LC Subject Headings에 나타난 한국관련 주제명의 선정 및 표기에 관한 연구," 부산여자대학교 논문집(인문사회과학대학편), 제44집(1997), pp.237-272.

4) 윤정옥, "미국의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LCSH)의 한국과 일본 관련 주제표목의 비교 연구," 도서관, 제56권, 제1호(2001. 3), pp.30-55.

5) 남태우, 전말숙, 정연순, 장로사, "자료조직 측면에서 독도표기 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2권, 제4호(2008. 12), pp.291-310.

6) 정연경, "정보의 접근점으로서 미국의회도서관 주제명 표목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4권, 제2호(2010. 5), pp.51-72.

7) 김정현, "미국의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한・중・일 관련 주제명표목의 변천과정 비교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1권, 제2호(2010. 6), pp.147-169.

8) 村上幸二, 前揭論文, pp.135-147.

9) 嶋田 眞智惠, "国立国会図書館件名標目表(NDLSH)の改訂作業と今後について," 情報の科學と技術, Vol.57, No.2(2007), pp.73-78.

10) 永森 光晴, 杉本 重雄, "国会図書館件名標目表(NDLSH)のSKOS化とそのグラフィカルブラウザの作成," ディジタル図書館, Vol.31(2006), pp.13-21.

www.kci.go.kr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제명표목표의 한국 관련 주제명에 대한 연구는 LCSH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는 NDLSH에 대한 연구도 일반적인 구조와 특성 등에 관한 자국내의 연구에 머무르고 있을 뿐, 특정 국가와 관련된 주제명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Ⅱ. NDLSH의 발전과정 및 특성

1. NDLSH의 발전과정

일본에서 최초로 개발된 주제명표목표는 加藤이 1930년에 간행한『日本件名標目表』로 1944년 증보판(제2판)을 발행한 이후, 1956년부터 BSH로 개칭되어 일본도서관협회 산하 건명표목위원회에서 편집 간행되고 있다. 현재 사용되는 최신판은 1999년에 간행된 제4판으로, 시소러스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CD-ROM으로도 제작되었다. 수록된 주제명은 표목수 7,847개, 참조 2,873개, 설명 참조 93개, 세목 169개 등 총 11,192개이다.

한편, 1948년 발족한 국립국회도서관(National Diet Library: NDL)에서는 1949년부터『日本件名標目表』를 사용하여 주제명 부여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주제명의 신설과 정정이 증가됨에 따라 독자적인 주제명표목표를 개발하여, 1964년에 NDLSH 초판(사무용)을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몇 차례의 개정작업을 거쳐 1991년 제5판이 발행되었으며, 수록된 주제명의 수는 초판의 약 9,000건에서 약 24,000건으로 증가하였다.

제5판에 대한 개정작업은 2004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기존판에 대한 여러 문제점의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즉, NDLSH 제5판의 주제명이 LCSH와 비교하였을 때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 참조어가 거의 입력되지 않아 검색에 어려움이 많고 주제명 사이의 관련성을 표시할 수 있는 상·하위어의 표시가 없는 점, 그리고 제5판이 간행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 신설된 주제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NDLSH 전자파일이 제공되지 않는 점 등이다. 개정작업의 결과 NDLSH 2004년판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즉, 시소러스 방식의 표시기호가 도입되었으며, 개정판의 명명 방식이 기존의 서수적인 용어에서 연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변화되었고 또한 책자형태가 아닌 전자파일 형식으로만 간행되었다.

2011년 현재 2008년판이 발간되어 있는데, NDL 홈페이지에서 NDC 분류기호순 배열표와 50음순 배열표 2종의 PDF 파일형식으로 제공되고 있고 희망자에게는 텍스트 데이터로도 제공된다. 50음순 배열표내에 수록된 주제명수는 표목 17,953건에 참조어까지 포함하여 총 47,816건으로, 제5판에 비해 두 배 정도 증가되었다.

www.kci.go.kr

2. NDLSH의 특성

NDLSH는 NDL내의 서양도서 및 일본도서 목록에서 사용실적이 있는 주제명을 수록한 표목표로서, 서양도서에만 사용되고 자국도서로의 사용실적이 없는 주제명도 포함시키고 있다. NDLSH는 아래와 같이 크게 주표목, 세목, 참조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11]

가. 주표목

NDLSH에 포함된 주제명표목은 48,000건(참조어 포함)으로 대부분 일반주제명이며, 개인명이나 단체명과 같은 고유명표목은 수록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다만, 지역명, 국가명, 대양명, 사건명, 주요 국제기관명, 주요 조약명 등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표목표에 수록된 주표목의 구문은 단일어, 복합어, 병렬어, 구 형식, 괄호 사용형식 등 다양하지만, 도치표목의 구문은 채택하지 않고 있다. 괄호를 사용하는 주제명표목의 대부분은 채택된 주제명만으로 의미가 애매모호하거나 같은 말을 복수의 분야에서 사용하는 등 한정어가 필요한 경우이지만, 이외에도 예술분야에서의 양식의 부기 및 SN(scope note)상의 지시가 있는 경우 괄호를 동반하기도 한다.

나. 세목

NDLSH 내의 주제명은 지시가 있는 경우, 그 주제명을 세목으로서 다른 주제명에 결합해 사용할 수 있다. 세목에는 주표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세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 SA참조주기와 USE참조주기를 사용하여 세목사용을 지시한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주표목에 결합되는 세목은 주제세목, 형식세목, 시대세목, 지명세목, 지명결합세목, 특수세목 등 6종류이다. 이중 일부의 시대세목(일본 및 20개국의 시대세목)과 특수세목을 제외하고는 세목이 부착된 주제명표목은 주제명표목표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1) 주제세목

주제세목은 주표목이 나타내는 내용을 상세화시키는 세목을 일컫는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제세목으로 사용가능한 주제명은 SA참조주기와 USE참조주기로 지시가 있는 것에 한정된다. 또한 일부 주제세목은 결합되는 주제명에 제한이 있기도 하며, 주제세목아래 재차 사용되는 주제세목도 찾아볼 수 있다. 주제세목 이외에도 NDLSH에서는 주제를 특정하기 위해 '주제구분'을 사용하는데, 이는 해당 주제명을 주표목으로 하고 세목을 결합하는 조치이다.

11) 嶋田 眞智惠, 前揭論文, pp.74-78.

www.kci.go.kr

(2) 형식세목

형식세목은 주제명에 결합되어 자료의 출판 형식, 서술 형식 등을 나타내는데, 주제세목과 같이 SA·USE참조주기로 지시가 있는 주제명만이 형식세목으로 사용된다. NDLSH 부록(세목일람)에 수록된 형식세목의 총수는 33개이며, 카탈로그, 회의록과 같은 출판형식이 대부분이다.

(3) 시대세목

주표목의 시대를 특정하는 시대세목은 주제명표목 '역사'의 뒤에 결합하되, 주표목에 이미 역사의 의미가 포함된 경우는 직접 결합한다. 시대세목의 종류는 '고대', '20세기', '1945～'와 같이 지역을 선택하지 않는 보편적인 세목과 일본을 포함한 주요 20개국에 독자적으로 적용되는 개별 시대세목이 있다.

(4) 지명세목

주제명표목에 지명을 나타내는 세목을 결합함으로써 지역을 특정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것을 지리구분이라 하고 결합되는 세목을 지명세목이라고 한다. 지명세목으로 사용가능한 표목은 최소의 행정단위까지이며, 일부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세목은 일본의 정령지정도시, 각 국가의 국명, 미국의 국명·주명·워싱턴 등은 직접 지리구분을 행하고, 나머지는 간접 지리구분 방식을 실시한다.

(5) 지명결합세목

지명결합세목은 지명표목에 세목이 결합되는 형태로, 한 지역의 주제를 특정할 수 있다. 지명에 결합되는 세목은 '국가나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주제'와 '지명 사이에 두어 표현하는 것'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며, SA·USE참조주기로 지시되어 있다. 부록(세목일람)에 수록된 총수는 46개이다.

(6) 특수세목

특수한 주제명표목 아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세목을 특수세목이라고 하며, 부록(세목일람)에 수록된 특수세목의 종류는 27개이다.

다. 참조

NDLSH에서 사용되는 참조는 '보라참조'와 '도보라참조'이다. USE와 UF로 표시되는 보라참조는 같은 개념에 대한 다른 표기형, 개념상의 차이가 적어 구분이 곤란한 용어, 두문자어, 약어 중 인구에 회자되는 것 등의 동등관계를 표시한다. 특히, LCSH과 BSH에 해당 주제명에 대응되는 용어가 존재하면 이를 참조형으로 기술함으로써, 관련 주제명으로부터의 검색이 가능하게 하였다.

www.kci.go.kr

2004년판부터 본격적으로 입력되기 시작된 도보라참조는 특정 표목과 관련된 다른 표목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표목들간의 관계성을 표시하는 역할을 하며, BT, NT, RT 등의 표시기호를 사용한다.

한편, 앞서 세목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참조이외에도 두 종류의 참조주기가 사용되고 있다. 먼저 USE 참조주기(보라 참조주기)는 주표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주제명을 세목으로 사용할 것을 지시한다. 반면에 SA참조주기(도보라 참조주기)는 주표목으로도 세목으로도 사용가능한 주제명의 세목 사용을 지시하거나, 하위개념에 해당되는 주제명이 다수인 경우 이를 지시하기도 한다.

Ⅲ. NDLSH 한·중 관련 주제명표목의 특성 분석

NDLSH 최신판인 2008년판에 수록된 한국과 중국 관련 주제명을 추출하여 전체 표목의 수와 개략적인 주제별 현황을 나타내면 〈표 1〉과 같다.[12] 〈표 1〉의 주제별 구분은 NDC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두 개 이상의 주제 분야에 관련된 주제명은 보다 근접한 주제로 포함시켰으며, 따라서 후술되는 주제별 설명상의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NDC 분류기호순 배열표와 50음순 배열표에는 세목이 부착된 주제명표목을 수록하고 있지 않으므로, 한·중 관련 주제명을 추출시에도 세목이 부착된 주제명은 제외시켰다. 다만, '朝鮮--歷史--19世紀'와 같이 시대세목과 결합하여 주제명표목표안에 수록되고 있는 역사 관련 표목과 '陶磁器--中国'과 같이 SN상의 예시로 제시된 표목 등은 포함시켰다.

1. 한국 관련 주제명표목의 특성

NDLSH에서 '韓國'과 '朝鮮'이 포함된 주제명을 비롯하여 '鄕歌', '両班', '竹島問題' 등과 같이 한국과 관련 있는 모든 주제명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목 88개 참조어 134개를 포함하여 전체 222개이다. 이들의 주제별 현황은 역사가 4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높은 사회과학분야의 21.2%를 포함하면 총 64%에 이른다.

가. 총류, 철학

한국의 철학 관련 주제명은 '朝鮮思想'과 '儒学' 2개로, 두 표목은 '朝鮮思想'을 상위어로 하여 계층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儒学'은 그 영향권에 있는 한·중·일의 특성상 '中国思想'과 '日本思想'과도 상하관계로 지정되어 있으며, '孔子教'와 'Confucianism' 등이 참조어로 처리되고 있다. 종

12) 国立国会図書館 Home page, 国立国会図書館件名標目表2008年度版.
〈http://www.ndl.go.jp/jp/library/data/ndl_ndlc.html〉 [cited 2011. 2. 25].

www.kci.go.kr

교와 관련된 표목은 '天道教', '東学', 'シャマニズム' 등 3개인데, 'シャマニズム'과 '東学', '東学'과 '天道教'가 각각 상관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한편, 총류에 해당되는 주제명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표 1〉 NDLSH 2008년판의 한·중 관련 주제명의 주제별 현황

주제별 구분		항목수							
		한국				중국			
		표목수	참조어수	소계(%)		표목수	참조어수	소계(%)	
0. 총류	총류					5	6	11	11 (1.7)
1. 철학	철학	2	4	6	15 (6.8)	20	44	64	75 (11.3)
	심리학					1	4	5	
	종교	3	6	9		2	4	6	
2. 역사	역사	29	56	85	95 (42.8)	108	144	252	303 (45.7)
	전기	1	0	1		1	0	1	
	지리	3	6	9		19	31	50	
3. 사회과학	정치, 외교	6	8	14	47 (21.2)	9	3	12	122 (18.4)
	경제(이민·식민)	16	5	21		36	12	48	
	사회(노동)	2	3	5		5	2	7	
	교육	3	2	5		3	1	4	
	민족	1	1	2		16	35	51	
4. 자연과학	수학				16 (7.2)	1	0	1	24 (3.6)
	천문학					1	5	6	
	식물학	2	7	9		1	1	2	
	동물학	1	6	7		1	1	2	
	의학, 약학					3	10	13	
5. 기술	건축학				10 (4.5)	1	0	1	6 (0.9)
	제조공업	1	1	2					
	가정학	2	6	8		2	3	5	
6. 산업	농업	2	1	3	3 (1.3)	2	1	3	10 (1.5)
	상업					3	4	7	
7. 예술	회화, 서도	1	3	4	6 (2.7)	7	10	17	17 (2.6)
	스포츠, 운동	1	1	2					
8. 언어	언어	6	11	17	17 (7.7)	25	33	58	58 (8.7)
9. 문학	문학	6	7	13	13 (5.8)	21	16	37	37 (5.6)
합계		88	134	222 (100%)		293	370	663 (100%)	

나. 역사

한국의 역사 관련 주제명은 역사, 전기, 지리 분야에 걸쳐 수록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시대세목이 첨부된 역사 관련 주제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역사 관련 주제명은 NDC 분류기호순 배

www.kci.go.kr

열표에서 210(일본역사)과 221(한국역사)에 분포되어 있다. 일본역사에 배정된 주제명은 '白村江の戦(663)', '朝鮮人虐殺事件(1923)', '文禄・慶長の役(1592～1593, 1597～1598)', '倭城', '日韓併合(1910)', '京城事変(1882, 1884)', '朝鮮通信使', '征韓論' 등 8개로, '白村江の戦(663)', '日韓併合(1910)', '朝鮮通信使'는 한국역사에도 중복 수록되어 있다. 이들 일본역사에 수록된 주제명은 일본에 의해 유발되었거나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용어들로서, 철저하게 일본의 관점을 반영하여 표목을 채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日韓併合(1910)'으로, 참조어로 두고 있는 '韓國併合(1910)'과 함께 모두 경술국치 당시 일본이 사용하던 용어들로만 주제명이 구성되어 있다. 또한 임진왜란・정유재란에 해당되는 '文禄・慶長の役(1592～1593, 1597～1598)'과 임오군란・갑신정변에 해당되는 '京城事変(1882, 1884)'은 여러 개의 주제명을 참조어로 설정하고 있으나, 임진왜란・정유재란과 같은 한국식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한편, '白村江の戦(663)'은 백제부흥군・왜연합군과 나・당연합군 사이에서 벌어진 백강전투를 일컬으며, 임진왜란・정유재란 당시 일본군에 의해 한국땅에 축조된 '倭城'은 '文禄・慶長の役(1592～1593, 1597～1598)'과 상관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文禄・慶長の役(1592～1593, 1597～1598)
  UF: 文禄・慶長の役(1592～98) ; 朝鮮の役(1592～1593, 1597～1598) ;
  壬辰の役 ; Korea -- History -- Japanese Invasions, 1592-1598
京城事変(1882, 1884)
  UF: 朝鮮事変(1882, 1884) ; 甲申政変(1884) ; 甲申の変(1884) ;
  壬午の変(1882) ; 壬午軍乱(1882)

한국역사에 수록된 주제명은 시대세목이 부착된 한국역사구분과 역사적인 사건명 그리고 한국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일부 개념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한국의 시대구분을 보면, 표목 16개, 참조어 43개로 총 59개의 주제명이 전개되고 있다. 표목 구성의 대부분은 NDLSH내에서 사용되는 한국의 국가명인 '朝鮮'을 주표목으로 하여 시대세목이 첨부된 형태이며, 영문 명칭이나 우리에게 익숙한 국가명(왕조명) 등은 참조어로 설정되어 있다. 표목들간의 계층관계를 살펴보면, '朝鮮--歷史--古代'의 하위에 '朝鮮--歷史--古朝鮮時代', '朝鮮--歷史--楽浪郡時代', '朝鮮--歷史--三国時代' 등이 설정되어 있으며, '朝鮮--歷史--三国時代'에 고구려・백제・신라에 해당되는 표목들이 하위어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삼국시대와 구별되는 삼한시대는 별도의 시대 세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삼국시대, 신라, 백제, 가야 등으로 참조표시만 되어 있다.

한편, '朝鮮--歷史--加羅諸国'에 참조어로 설정된 '任那'는 일본의 '임라일본부설(任那日本府設)'의 주장과도 관련성을 보이고 있어, 일본의 역사인식에 대한 시각을 엿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역사부분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다른 하나는 발해를 중국 역사의 일부로 전개하고 있는 점이다. 즉, 표목은 국가명 '渤海'를 사용하고 있지만 '中国--歷史--渤海'를 참조어로 두고 있고

www.kci.go.kr

NDC내에서도 중국역사에 배열하고 있다. 이것은 발해를 자국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입장에 치우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시대세분은 '朝鮮--歷史--1945～'를 마지막으로 '朝鮮(1948～ 大韓民国)'과 '朝鮮(1948～ 民主主義人民共和国)'의 설정 이외에는 더 이상의 전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후 역사에 대한 시대구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朝鮮--歷史--古代
  UF: Korea -- History -- To 935
朝鮮--歷史--古朝鮮時代
  UF: 檀君朝鮮 ; 箕子朝鮮 ; 衛氏朝鮮
朝鮮--歷史--楽浪郡時代
  UF: 朝鮮--歷史--楽浪郡 ; Luolang
朝鮮--歷史--三国時代
  UF: 三国時代(朝鮮) ; 三韓時代 ; 朝鮮--歷史--三韓時代
朝鮮--歷史--高句麗
  UF: 高句麗 ; Koguryo(Kingdom)
朝鮮--歷史--百済
  UF: 百済 ; 馬韓 ; Paekche(Kingdom)
朝鮮--歷史--新羅
  UF: 新羅 ; 辰韓 ; Silla(Kingdom)
朝鮮--歷史--加羅諸国
  UF: 任那(ミマナ) ; 任那(ニンナ) ; 加耶 ; 伽耶 ; 加羅 ; 金官加羅 ; 金官加耶 ; 弁韓
朝鮮--歷史--高麗時代
  UF: 朝鮮--歷史--高麗 ; 高麗 ; Korea -- History -- Koryo period, 935-1392
朝鮮--歷史--李朝時代
  UF: 朝鮮--歷史--李朝 ; 朝鮮--歷史--朝鮮時代 ; 李朝 ; Korea -- History -- Choson dynasty, 1392-1910
朝鮮--歷史--19世紀
朝鮮--歷史--日本統治時代
  UF: 朝鮮--歷史--日韓併合時代(1910-45) ; Korea--History--Japanese occupation, 1910-1945
朝鮮--歷史--1945～
  UF: 朝鮮--歷史--1945年以後 ; Korea -- History -- 1945-
朝鮮(1948～ 大韓民国)
  UF: 韓国 ; Korea(South)
朝鮮(1948～ 民主主義人民共和国)
  UF: 北朝鮮 ;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 ; Korea(North)
渤海
  UF: 中国--歷史--渤海 ; Bohai(Kingdom)

다음으로 한국역사에 수록된 역사적인 사건명은 '白村江の戦(663)', '東学党の乱(1894)', '三・一独立運動(1919)', '日韓併合(1910)', '朝鮮戦争(1950～1953)', '済州島四・三蜂起(1948)' 등 6개에 불과하며, 그나마 '白村江の戦(663)'과 '日韓併合(1910)'은 일본역사에 중복된 용어들이다. 한국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일부 개념어들의 수와 종류도 일부에 지나지 않는데, 일본역사에 포함된 '朝鮮通信使'를 포함하여 '朝鮮研究', '両班', '創氏改名', '土城遺跡', '花郎団' 등 6개이다. 이 가운데 '両班'과 '花郎団'은 LCSH에도 수록된 주제명으로, LCSH에서 채택된 표목인 'Yangban'과 'Hwarangdo'를 참조어로 표시하고 있다.

www.kci.go.kr

한국의 역사 관련 주제명의 나머지는 전기 분야의 '朝鮮人'과 지리 분야의 '朝鮮', '朝鮮(1948～ 大韓民国)', '朝鮮(1948～ 民主主義人民共和国)' 등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NDLSH는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고유명 표목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국가명을 제외한 국경 및 주요 지리명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다만, '日本海海戦(1905)(참조어 : Tsushima, Battle of, 1905)'이나 '日本海中部地震(1983)'과 같은 표목을 통해 동해를 일본해로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독도문제는 외교문제(31)에서 후술하도록 한다. 한편, 한국의 국가명은 분단을 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에 대해서는 '朝鮮'을 사용하되, 분단 이후는 대한민국과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朝鮮(1948～ 大韓民国)'과 '朝鮮(1948～ 民主主義人民共和国)'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나 북한의 공식 국가명은 괄호속의 한정어로 사용하거나 참조어로 처리하는 반면, 현존하지 않는 '조선'의 국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설정으로 조속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다. 사회과학

NDC내의 사회과학속에 포함된 한국 관련 주제명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치・외교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전개되고 있다. 먼저 정치・외교 분야에서는 정치단체명인 '大韓民国(臨時政府 1919～1945)'과 외교문제에 해당되는 '朝鮮問題', '民族問題', '金大中拉致事件(1973)', '竹島問題', '日韓基本条約' 등 전체 6개의 표목과 참조어 8개가 수록되어 있다. 여기서 '朝鮮問題'는 남북한의 통일문제에 해당되는 주제명이며, 지리구분이 가능한 '民族問題'는 하위어로 '朝鮮人(日本在留)'을 두고 있다. 하지만 '朝鮮人(日本在留)'은 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을 다루는 경제(이민・식민)분야에서 유사 용어들과 범주화하여 상술하도록 한다. 한편, 한・일간에 영유권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독도에 대해서는 '竹島問題(竹島의 일본식 읽기는 '다케시마'임)'로 표목을 설정하고 있어 그들의 영유권 주장과 일치된 시각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경제와 관련된 주제명은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들과 한국에 거주하는 주요 외국인들로 대별된다. 먼저 외국 거주 한국인들에 대한 표목은 '朝鮮人(外国在留)'을 포함하여 미국, 일본, 중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러시아, 시베리아, 만주, 하와이주, 사할린 등 11개 지역으로, '朝鮮人(국명在留)'의 동일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중 '朝鮮人(日本在留)'에는 '日本在留朝鮮人'과 '在日朝鮮人'이 참조어로 되어 있다. 반면 한국에 거주하는 주요 외국인은 '外国人(朝鮮在留)'을 포함하여 네덜란드인, 일본인, 중국인(화교) 등이다.

사회관련 주제명으로는 '朝鮮人強制連行'과 '慰安婦'가 수록되어 있는데, 두 표목 모두 '強制労働'과 각각 계층 및 상관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朝鮮人強制連行'은 일제강점기 시기에 한국인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강제 연행된 도시명으로 지리구분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교토(京都市) 등 5개 지역명이 추가되어 사용되고 있다. '慰安婦'는 '従軍慰安婦'와 LCSH상의 표목인 'Comfort women'

www.kci.go.kr

을 참조어로 두고 있다.

교육관련 주제명은 '書院', '朝鮮語教育', '朝鮮学校' 등 표목 3개, 참조어 2개, 총 5개의 주제명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 '書院'은 SN을 통해 중국과 조선에 있어서 근세의 교육 연구기관에 대해 사용하도록 주기하고 있다. 풍속관습(민속학) 분야의 표목으로는 '行商--朝鮮'을 들 수 있다. 이는 세목이 부착된 형태이지만 한국 관련 개념어에 해당되는 '負褓商'을 참조어로 두고 있어 주제명으로 추출하였다.

竹島問題
  UF: 独島問題 ; 独島問題
朝鮮人(日本在留)
  UF: 日本在留朝鮮人 ; 在日朝鮮人

라. 자연과학, 기술, 산업

한국 관련 동·식물은 인삼, 흰독말풀(조선나팔꽃), 까치 등 3개가 각각 'ニンジン(薬用)', 'チョウセンアサガオ', 'カササギ'로 표목이 채택되어 수록되어 있다. 이중 흰독말풀과 까치는 원산지의 진위와 상관없이 그 이름에 '朝鮮' 또는 '高麗' 등의 국명이 붙어 있으므로 한국과 관련된 주제명으로 추출하였다. 이들 표목들은 LCSH 내의 해당 표목인 'Ginseng'이나 'Magpies'을 포함하여 다양한 참조어로 연결되어 있다.

기술과 관련된 주제명은 소주와 김치 그리고 한국요리가 있으며, 각각 '焼酎', 'キムチ', '朝鮮料理' 등의 표목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중 '焼酎'는 일본내의 지방명으로 지리구분하되, 일본 이외의 소주에 대해서는 지리구분을 실시하지 않도록 주기하고 있다. 한데 그 예시를 "아시아의 소주에 대해서는『소주』"로 제시함으로써 한국과의 관련성을 전혀 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김치의 경우도 국제적 정식명칭인 'Kimchi'가 아닌 일본식 표현의 'キムチ(기무치)'를 표목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국 중심의 시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참고어 '沈菜(침채)'는 김치의 한자 표현이다.

다음으로 산업과 관련된 주제명은 '土地制度'의 하위어로 설정된 '屯田'과 관련어인 '屯田兵' 2개가 있으며 '屯田'의 참조어로 'Agricultural colonies'가 설정되어 있다. 그런데 군량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한 토지인 둔전은 고려·조선은 물론, 중국과 일본에서도 사용되어온 제도로 한·중·일 삼국과 모두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チョウセンアサガオ
  UF: 朝鮮朝顔 ; 曼陀羅華
カササギ
  UF: 鵲 ; かち烏 ; 朝鮮烏 ; 高麗烏 ; 烏鵲 ; Magpies
キムチ
  UF: 沈菜 ; Kimchi

www.kci.go.kr

마. 예술, 언어, 문학

한국의 예술 관련 주제명은 행서와 태권도로 각각 '行書'와 'テコンドー'로 표목이 채택되어 있다. 이중 '行書'는 아래의 참조어들을 통해 한・중・일에 공통으로 사용가능하며, 'テコンドー'는 LCSH상의 표목인 'Tae kwon do'를 참조어로 하고 격투종목을 의미하는 '格技'의 하위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언어와 관련된 표목은 '朝鮮語', '朝鮮語(法律用)', '朝鮮語(科学技術用)', '朝鮮語(医学用)', 'ハングル', '吏読' 등 6개로, 참조어 11개를 포함하여 총 17개의 주제명을 수록하고 있다. 여기에서 '朝鮮語'와 다른 주제 언어 3개는 상하위어로 연결되어 계층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NDC 분류기호순 배열표에는 각 주제내에 수록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상위어 '朝鮮語'의 카테고리로 범주화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고유 글자인 한글은 다양한 참조어로 연결되어 있으나, 'Hangul'은 참조어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반면 한자 차용 표기법인 이두는 세목이기는 하지만 'Idu'라는 영문명이 사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학 관련 주제명은 '朝鮮文学'을 상위어로 문학의 대표 장르인 시, 소설, 희곡, 수필 등과 신라가요 향가가 '朝鮮詩', '朝鮮戯曲', '朝鮮小説', '朝鮮随筆', '郷歌' 등의 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6개의 표목 모두 LCSH상의 해당 표목을 참조어로 설정하고 있으며, '朝鮮詩'와 '郷歌'는 계층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行書
  UF: Chinese language -- Cursive writing ; Japanese language -- Cursive writing ; Korean language -- Cursive writing
ハングル
  UF: 朝鮮語--文字(チョウセンゴ--モンジ) ; 朝鮮語--文字(チョウセンゴ--モジ) ; 朝鮮文字(チョウセンモンジ) ; 朝鮮文字(チョウセンモジ)
朝鮮詩
  UF: Korean poetry
  BT: 朝鮮文学
  NT: 郷歌

2. 중국 관련 주제명표목의 특성

NDLSH에서 '中国'이 포함된 주제명을 비롯하여 '宋版', '三民主義', '花岡事件(1945)' 등과 같이 '中国'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중국과 관련 있는 모든 주제명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목 293개, 참조어 370개를 포함하여 전체 663개이다. 주제별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와 거의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즉, 역사와 사회과학분야가 각각 45.7%와 18.4%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두 분야의 주제명이 전체 64%를 차지하고 있다.

www.kci.go.kr

가. 총류, 철학

총류 관련 주제명은 고판(古版)의 종류로서 '宋版'과 '元版'을 수록하고 있으며, 중국어 필사본을 의미하는 '写本(中国語)'와 '写本(満州語)'도 수록되어 있다. 또한 주제명표목 '逐次刊行物'의 SN에 언어별 축차간행물의 예시로 '逐次刊行物(中国語)'이 제시되어 있다.

철학분야는 '中国思想'과 '儒学', '聖堂(孔子廟)', '諸子' 등 표목 20개에 참조어 44개를 포함하여 총 64개에 이른다. 앞서 한국의 철학분야에서와 같이 '中国思想'과 '儒学'은 계층관계로 연결되어 있으며, '儒学'의 하위에 대표 사조인 '訓詁学', '考証学', '朱子学', '宋学', '陽明学' 등이 설정되어 있다. 또한 유학의 근본 사상이라 할 수 있는 '仁'과 '礼'는 LCSH상의 해당 표목 'Ren'과 'Li'을 각각 참조어로 설정하고 있다. 한편, 춘추전국시대의 학자 및 사상을 일컫는 '諸子'는 '道家', '墨家', '名家', '法家' 등과 상하의 계층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儒者', '経書', '緯書', '石経' '西学' 등도 중국과 관련된 철학 분야의 주제명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 심리학 분야의 '陰陽五行' 및 종교 관련 '道教'와 'チベット仏教'가 수록되어 있다. 이중 티벳불교에 해당되는 'チベット仏教'는 티베트를 중국의 자치구로 바라보는 중국의 입장에서 기재되어 있다.

経書
  UF: 五経 ; 経学 ; 四書 ; 経籍 ; 九経 ; 十二経 ; 十三経
宋学
  UF: 程朱学 ; 性理学〔セイリガク〕
チベット仏教(チベットブッキョウ)
  UF: ラマ教(ラマキョウ) ; チベット密教(チベットミッキョウ) ; Buddhism -- China -- Tibet

나. 역사

중국의 역사 관련 주제명도 한국과 같이 역사, 전기, 지리 분야에 걸쳐 수록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시대구분이나 역사적 사건을 다룬 역사 관련 주제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먼저 일본역사(210)에 수록된 주제명은 '日宋貿易', '元寇(1274,1281)', '勘合貿易', '日清戦争(1894～1895)', '山東出兵(1927～1928)', '上海事変(1932)', '平頂山事件(1932)', '満州事変(1931～1932)', '蘆溝橋事件(1937)', '南京事件(1937)', '日中戦争(1937～1945)', '奉天会戦(1905)', '旅順攻略(1904～1905)' 등 13개이며, 참조어도 29개가 포함되어 있다. 이중 일본과 송나라간의 무역을 의미하는 '日宋貿易', 몽고(원)의 일본 원정 전쟁인 '元寇(1274, 1281)', 임진왜란의 빌미로 제시되었던 '勘合貿易' 그리고 '日清戦争(1894～1895)'은 20세기 이전의 사건이며, 나머지는 중일전쟁을 전후해 일본이 발발한 학살사건이나 전쟁에 해당된다. 한편 '奉天会戦(1905)'과 '旅順攻略(1904～1905)'은 러일전쟁의 대표적인 전투들로 '日露戦争(1904～1905)'의 하위에 설정되어 있으나, 중국지역에서 일어난 만큼 중국 관련 주제명으로 추출하였다.

www.kci.go.kr

日中戦争(1937～1945)
UF: 日中戦争 ; 日華事変(1937～1945) ; 中日戦争(1937～1945) ; 日支事変(1937～1945) ; シナ事変(1937～1945) ; 北支事変 ; Sino-Japanese Conflict, 1937-1945
奉天会戦(1905)(ホウテンカイセン(1905))
UF: Mukden, Battle of, Shenyang, Liaoning Sheng, China, 1905
BT: 日露戦争(1904～1905)

다음으로 중국 역사에 수록된 중국의 시대구분은 표목 38개, 참조어 57개, 총 95개로 상당히 상세한 시대구분을 보여주고 있다. 표목의 형태는 중국의 국가명인 '中國'을 주표목으로 하여 시대세목이 첨부된 방식이며, 영어식 표현은 참조어로 설정되어 있다. 각 시대나 왕조간의 관련성은 계층관계로 연결되는데, 예를 들어 '中国--歷史--古代'의 하위에 '中国--歷史--殷時代', '中国--歷史--周時代', '中国--歷史--春秋時代', '中国--歷史--戦国時代', '中国--歷史--秦時代', '中国--歷史--漢時代' 등이 설정되어 있다. 한편, 대만의 역사와 관련하여 3개의 시대구분 표목을 중국역사 부분에 배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만을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中国--歷史--古代
中国--歷史--殷時代
UF: 殷時代 ; 商時代 ; --歷史--殷(商)時代 ; China -- History -- Shang dynasty, 1766-1122 B.C.
...
中国--歷史--20世紀
UF: China -- History -- 20th century
中国--歷史--民国時代
UF: China -- History -- Republic, 1912-1949
中国--歷史--1949～
UF: China -- History -- 1949-
台湾--歷史--清時代
台湾--歷史--日本統治時代
UF: Taiwan -- History -- 1895-1945
台湾--歷史--1945～

중국역사에 수록된 역사적인 사건명은 표목 23개와 참조어 30개를 포함하여 총 53개이다. 여기에는 '黄巾の乱(184)', '太平天国(1850～1864)', '洋務運動(1860～1894)', '辛亥革命(1911～1912)', '一二・九運動(1935)' 등과 같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건들은 물론, 비교적 현대적 사건이라 할 수 있는 '天安門事件(1989)'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대만 원주민의 반일항쟁인 '霧社事件(1930)'과 같은 대만과 관련된 사건도 수록되어 있다.

한편, 중국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개념어는 표목 34개와 참조어 28개로 총 62개이다. 이 중에는 '甲骨文', '木簡・竹簡'과 같은 중국 고대 문자나 필사재료부터 무덤 부장 기물인 '明器', 나무로 만든 사람 형상인 '俑', 구리로 만든 북인 '銅鼓' 등의 무덤 출토품 관련 주제명도 있으며, '明器'와 '銅鼓'는 LCSH상의 해당 표목을 참조어로 연결하고 있다. 또한 조세로 징수한 곡물을 선박으로

www.kci.go.kr

운송하는 제도인 '漕運', 전국 군대를 여덟 빛깔의 단위로 나눈 청나라의 군대 편제인 '八旗', 명·청 시대에 농민을 다스리는 향촌조직인 '里甲制' 등의 각종 제도 및 '宦官'이나 '後宮'과 같은 특정 신분계급도 주제명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흉노, 여진, 선비족과 같은 중국 고대 민족들도 12개의 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중국의 역사 관련 주제명의 나머지는 전기 분야의 '中国人'과 지리 분야의 국가명 및 지역명으로, 국가 및 지역명은 표목 19개, 참조어 31로 총 50개에 이른다. 주제명표목표에서 사용되는 중국의 국가명은 '中国'이며 영문명 'China'는 참조어로 되어 있다. 또한 1932년 일본에 의해 세워져 1945년 소멸된 만주국과 홍콩, 대만 등도 각각 '満州', '香港', '台湾'이란 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기타 지역명은 내몽고자치구, 신강위구르자치구, 서장자치구(티벳자치구)를 의미하는 '内蒙古', '新疆', 'チベット'이 있으며, 나머지 지역명은 '中国(北部)', '中国(西南部)' 등과 같이 행정구역명이 아니라 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광범위한 지역범위를 표목으로 수록하고 있다.

辛亥革命(1911~1912)
  UF: 中国--歴史--民国時代--辛亥革命(1911~1912) ; China -- History -- Revolution, 1911-1912
明器
  UF: Ming qi
内蒙古
  UF: 内蒙古自治区 ; 内蒙古 ; Inner Mongolia(China)

다. 사회과학

사회과학내에서 먼저 정치·외교분야의 주제명으로는 9개의 표목과 참조어 3개가 있다. 여기에는 정치사상으로서 '三民主義', 청나라와 서구 열강이 맺은 조약을 나타내는 '天津条約(1885)', 일본과 관련된 '山東問題', '大陸浪人', '日中平和条約(1978)', 그리고 소련(현 러시아)과 관련된 '中ソ対立', '中ソ友好同盟(1950)'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満州問題'와 'チベット問題'가 포함되어 있다.

경제와 관련된 주제명은 한국의 경우와 같이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인들과 중국에 거주하는 주요 외국인들로 대별된다. 먼저 외국에서 활동하는 중국인은 장기 거주자와 단기 체류자로 구별하여 표목을 구성하고 있다. 즉, 중국 국적을 가지고서 여러 나라에 정착해 활동하는 화교와 유학생과 같은 일시체류자들은 각각 '華僑(日本在留)'와 '中国人(日本在留)'으로 표목의 형태가 다르다. 외국에 거주하는 화교를 나타내는 주제명은 상위어 '華僑'를 포함하여 한국(조선), 일본, 미국, 하와이 등 전체 20개의 지역에 이른다. 반면 외국에 체류하는 중국인에 대한 표목은 일본과 미국 두 나라에 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外国人(中国在留)'을 포함하여 한국인(조선인), 일본인, 러시아인, 미국인 등이다. 한편, 중국의 영토적 특성을 반영하여 대만, 홍콩, 만주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별도의 주제명을 배정하고 있는데, '日本人(香港在留)', '朝鮮人(満州在留)' 등을 포함한 6개의 표목과 참조어 2개가 수록되어 있다. 이외에도 화교들이 이주

www.kci.go.kr

한 나라에서 형성한 지역이나 거리를 의미하는 '中華街'도 수록되어 있으며, '華僑'와는 상관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사회관련 주제명으로는 '会館(中国)', '四川大地震(2008)', '中国人強制連行', '花岡事件(1945)', '中国残留孤児'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 '会館(中国)'은 단순한 모임 장소란 의미보다 더 넓고 깊은 의미를 갖는 중국의 단체로서 길드(ギルド)와 상관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中国人強制連行'은 앞서 살펴본 '朝鮮人強制連行'과 같이 중국 노동자들이 강제 연행된 도시명으로 지리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교토(京都市) 등 4개의 지역구분이 첨가된 주제명이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中国人強制連行'과 RT로 연결된 '花岡事件(1945)'은 아키타현의 광산 하나오카(花岡)에서 일어난 중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자연재해와 관련하여 중국 사천성에서 2008년에 일어난 대규모 지진인 '四川大地震(2008)'은 NDC 분류기호순 배열표나 50음순 배열표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Web-NDLSH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관련 주제명은 '書院', '中国語教育', '留学生(中国)--日本' 등 3개로, '書院'은 중국과 한국에 공통으로 사용된다. '留学生(中国)--日本'은 유학 지역에 의한 지역세목이 부착된 형태로, '留学生'의 SN상의 예시로 제시된 표목이다. 괄호안의 국명은 유학생의 출신지를 의미하며, 따라서 위 표목은 일본에서 공부하는 중국 출신의 유학생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풍속관습(민속학) 분야의 주제명은 표목 16개와 참조어 35개로 총 51개에 이르며, 이중 '漢民族', '回族', '納西族' 등과 같은 중국 민족과 관련된 표목이 14개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한족(漢族)을 포함하여 50개가 넘는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중국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이외에 중국의 전통의상에 해당하는 '中国服'과 중국의 전통신앙인 '媽祖信仰'도 수록되어 있다.

満州問題
  UF: 満蒙問題
  RT: 商租権
四川大地震(2008)
  UF: Sichuan Earthquake, China, 2008
漢民族
  UF: 中国民族 ; 漢人 ; 漢族 ; Chinese [LCSH]

라. 자연과학, 기술, 산업

자연과학속에 포함된 중국 관련 주제명은 많은 수는 아니지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수록되어 있다. 즉, 수학과 천문학 분야의 '中国算法'과 '中国暦'을 포함하여 중국배추와 누에에 해당되는 '白菜'와 '柞蚕'이 있으며, 의학・약학 분야는 '漢方医学', '漢方薬', '薬膳' 등이 표목으로 채택되어 있다. 특히 '漢方医学'은 '皇漢医学', '漢方', '中国医学' 등 9개의 참조어가 설정되어 있으며, 생약과 한방약을 음식에 넣는 중국의 전통 건강요리 '薬膳'은 다른 두 표목 및 후술될 '中華料理'와

www.kci.go.kr

RT로 연결되어 있다.

기술과 관련된 주제명은 중국건축과 중국요리 그리고 중국차가 있으며 각각 '建築--中国', '中華料理', '中国茶' 등의 표목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중 '建築--中国'은 '建築(東洋)'의 SN상에서 중국의 전통적인 양식의 건축에 사용하도록 제시한 예시의 일종이다.

산업과 관련된 주제명은 농업분야의 '屯田'과 '屯田兵'이 있는데, 이는 앞서 한국 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중·일 공통 관련 주제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상업분야의 '中華料理店', 'ラーメン店', '日本--貿易--中国' 등 3개의 표목과 4개의 참조어가 수록되어 있으며, '中華料理店', 'ラーメン店'은 2009년에 작성된 비교적 최근에 생성된 표목으로 NDC 분류기호순이나 50음순 배열표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라면집을 의미하는 'ラーメン店'은 '中華そば店(중국소바점)'을 참조어로, '中華料理店'을 상관어로 연결하고 있는데, 라면과 중국의 관련성은 참고로 연결된 일본 위키피아의 설명 즉, "라면은 '中華そば'나 '支那そば'로도 불리며 그것의 원형이 중국의 면요리(소바)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日本--貿易--中国'은 일본에 있어서 중국과의 무역을 나타내는 지명결합세목 형식의 표목으로, '貿易'의 SN상의 예시이다.

漢方医学
  UF: 東洋医学 ; 皇漢医学 ; 漢医学 ; 漢方 ; 漢法 ; 中医学 ;
      中国医学 ; Medicine, Chinese ; Medicine, Oriental
中華料理
  UF: 料理(中国) ; 中国料理 ; Cookery, Chinese
  NT: 薬膳

마. 예술, 언어, 문학

예술 관련 주제명은 'シノアズリー'와 '漢字' 그리고 한자의 서체인 '楷書', '行書', '草書', '篆書', '隷書' 등 7개로, 참조어 10개를 포함하여 총 17개의 주제명이다. 이중 'シノアズリー(시누아즈리)'는 근세 유럽 미술에서 성행한 중국적인 기풍, 또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공예품을 의미하는 중국양식(chinoiserie)에 해당되며, '漢字'는 언어분야에서도 중복 수록되어 있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行書'는 참조어들을 통해 한·중·일에 공통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언어와 관련 주제명은 표목 25개와 참조어 33개로 총 58개가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中国語'와 중국 정부가 제정한 표음기호인 '注音符号', 그리고 '中国語'와 계층관계로 연결된 7개 분야의 주제용 중국어 즉, 과학기술용, 전기공학용, 정보처리용, 의학용, 특허용, 법률용, 요리용 등의 중국어가 배정되어 있다. 또한 '漢文'과 현대 중국어문에 사용되도록 주기된 '時文' 그리고 한자의 음운인 '音韻(漢字)', 한문자의 음운을 그림표로 나타낸 책인 '韻鏡', 그리고 자전 색인의 일종인 '検字法' 등도 있다. 한편, '満州語', '契丹文字', 'ロロ語'와 같이 옛 중국의 고대 민족이나 현대 소수민족의 언어도 11개의 표목으로 배정되어 있다. 참고로 역사일반의 고고학적인 관점에서 수록된

www.kci.go.kr

'金石·金石文(女真語)'은 언어적 공통성을 고려하여 언어 관련 주제명으로 추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학 관련 주제명은 한국과 유사하게 '中国文学'을 상위어로 문학의 대표 장르인 시, 소설, 희곡, 수필이 '中国詩', '中国戯曲', '中国小説', '中国随筆' 등의 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시(조선시)에 향가를 배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장르별 하위 표목을 수록하지 않는 것과는 달리, 중국소설에 '伝奇'를, 중국희곡에 '伝奇'와 '雑劇'을, 중국시에는 '漢詩(中国)', '宋詩', '楽府', '唐詩', '元詩', '明詩', '清詩', '詞', '賦' 등의 종류를 수록하고 있다. 이외에 일본문학에도 수록되어 있는 '漢文--文集', 원나라 말기 창(唱)의 일종인 '弾詞', 불교 구승 문학에 해당되는 '宝巻'과 '変文', 그리고 이야기만을 구연하는 곡예를 의미하는 '説書' 등도 수록되어 있다.

シノアズリー
  UF: シノワズリー ; Decorative arts -- Europe -- Chinese influences
ロロ語
  UF: 阿細語 ; 彝語 ; 撒尾語 ; Yi language
中国詩(チュウゴクシ)
  UF: Chinese poetry [LCSH]
  NT: 漢詩(中国) ; 宋詩 ; 楽府 ; 唐詩 ; 元詩 ; 明詩 ; 清詩 ; 詞 ; 賦

3. 한·중 관련 주제명표목의 비교 분석

앞 절에서 분석한 한국과 중국 관련 주제명표목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1) 〈표 1〉에서와 같이, NDLSH에 수록된 한국 관련 주제명은 표목 88개, 참조어 134개를 포함하여 전체 222개로, 중국 관련 주제명 663개(표목 293개, 참조어 370개)와 비교하면 33% 수준이다.

(2) NDLSH에 수록된 한국과 중국 관련 주제명의 주제별 현황은 매우 유사하다. 양국 모두 역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한국 42.8%, 중국 45.7%), 두 번째는 사회과학분야로(한국 21.2%, 중국 18.4%), 두 분야의 주제명을 합치면 64%에 이른다. 이외에 한국은 자연과학, 언어, 철학분야에서 비슷한 수를 보이는 반면, 중국은 철학과 언어의 비중이 다른 주제분야에 비해 약간 높은 편이다. 한편, 한국은 총류에 해당되는 주제명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3) 양국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주제명은 '儒学', '書院', '屯田', '屯田兵', '行書' 등이 해당된다. 이 중 '儒学'과 '行書'는 표목표상의 참조표시를 통해 공통사용을 표시하고 있는데, '儒学'은 '朝鮮思想', '中国思想', '日本思想' 등과 계층관계로 설정되어 있고, '行書'는 'Korean language -- Cursive writing'과 같이 국가명을 포함한 세 개의 참조어를 통해 직접적인 공통 사용을 표시하고 있다. '書院'은 SN을 통해 중국과 조선의 근세 교육기관에 사용하도

www.kci.go.kr

록 지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회분야의 '朝鮮人强制連行'과 '中国人强制連行'도 일제강점시기 일본에 의해 자행된 한·중 노동자들의 강제연행을 다루고 있고, 두 표목 모두 강제연행된 주요 도시명으로 지리구분하고 있어 한·중 공통 표목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외교부문에 수록된 '排日問題'도 특정 국가를 나타내는 참조표시가 없어 통계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한·중 양국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4) 중국 관련 주제명에는 다민족국가의 특성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즉, 역사분야에서 흉노, 여진과 같은 고대민족들에 대한 12개의 표목, 지리분야에서 내몽고자치구, 서장자치구와 같은 소수민족의 영토에 대한 표목, 또한 언어분야에서 고대민족이나 현대 소수 민족 언어에 배정된 11개의 표목 등은 한국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중국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만주, 대만, 홍콩과 같이 중국과 연관된 국가나 지역들에 대한 주제명도 특이사항으로 볼 수 있다.

(5) 중국의 국가명칭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中国'과 영문명 'China'를 각각 표목과 참조어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과거의 국명인 '朝鮮'을 표목으로 사용하고 있고, 정식명칭인 '대한민국'이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해서는 괄호속의 한정어로만 사용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호를 6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한 것이다.

(6) NDLSH는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고유명 표목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즉, 한·중이 관련된 압록강, 두만강, 백두산 등이나, 중·일간의 논란이 되고 있는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에 대한 주제명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한·일간에 영유권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독도에 대해서는 외교·국제문제의 일환으로 '竹島問題'로 표목을 직접 설정하고 있고, 동해에 대해서는 '日本海海戦(1905)', '日本海中部地震(1983)'과 같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일본해를 표현하고 있어, 논쟁 당사국의 대표적인 주제명표목표로서 자국의 주장과 일치되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7) 한국의 역사 관련 주제명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역사적 사건이나 개념어는 각각 9개와 8개로 극히 적은 편이다. 게다가 절반 이상은 일본과 연관된 주제명이다. 반면에 중국의 역사적 사건과 개념은 33개와 37개로, 여러 역사적 사건들과 무덤 출토품, 각종 제도 및 신분계급, 고대민족 등 다양한 주제명을 수록하고 있다. 양국의 역사적 배경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한국의 역사 관련 주제명 수는 중국과 비교하였을 때 수적으로 너무 적고 주제의 다양성면에서도 매우 한정적이다.

(8) 역사분야의 시대세목에서는 삼한시대, 발해, 가야 등과 관련된 주제명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먼저 삼한시대는 독립 표목이 아닌 삼국시대와 동일시대로 설정되어 있고 마한과 진한은 각각 백제와 신라의 참조어로 변한은 가야의 참조어로 설정되어 있을 뿐이다. 가야의 경우, 참조어로 설정된 '任那'는 일본이 식민사관의 일환으로 주장하고 있는 '임라일본부설

www.kci.go.kr

(任那日本府設)'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또한 발해는 중국의 입장만을 수용하여 참조어 설정이나 NDC내의 배열에서 중국 역사로 전개되고 있다. 이외에도 동예, 옥저, 부여 등 고대 국가명에 대한 주제명의 추가가 필요하다.

(9) '朝鮮--歷史--1945～'와 '中国--歷史--1949～'을 마지막으로 한・중 모두 20세기 중반 이후의 시대구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까닭에 '金大中拉致事件(1973)', '天安門事件(1989)', '四川大地震(2008)'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현대적인 사건명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한국의 경우 '金大中拉致事件(1973)'은 한・일간의 외교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어, 엄밀하게 따져보면 한국 관련 역사적 사건은 '朝鮮戦争(1950～1953)'이 마지막이라 할 수 있다.

Ⅳ. 결 론

지금까지 NDLSH의 발전과정과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최신판인 2008년판에 수록된 한・중 관련 주제명을 추출하여 표목 및 참조어의 수와 주제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NDLSH 에 수록된 한・중 관련 주제명표목의 전체적인 특성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양국의 주제명표목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NDLSH에 수록된 한국 관련 주제명은 양국의 역사적 배경과 지리적 특성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중국 관련 주제명에 비해 주제명 수나 주제의 다양성 및 특정성 측면에서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주제명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한국의 국가명칭은 '朝鮮'으로 표기하고 있어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역사의 시대구분은 한・중 모두 1945년 이후를 세분하지 않아 최근의 사건을 시대별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竹島'나 '任那' 등은 일본의 입장에서 기술되어 있고, '渤海'는 중국의 입장에 치우쳐 있다. 이와 같이 특정 주제명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학설이거나 국가 간에 논란이 있는 경우 최소한 양자의 입장을 대등하게 수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국가의 대표적인 주제명표목표으로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LCSH와 같이 NDLSH도 문헌적 근거 원칙에 따라 새로운 주제명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있지만, 독립 주제명을 새롭게 추가하기 보다는 기존의 주제명에 세목을 첨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목이 결합된 주제명까지 포함된 Web-NDLSH를 대상으로 한국 관련 주제명의 변천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www.kci.go.kr

www.kci.go.kr